

[화보]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8 이기태 | ㉠ 승인 2008.08.28 16:10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오랜 기간동안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애써왔고, 민주당도 범국민 의자캠페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산업재해'에 버금가고 끝내 과도한 스트레스때문에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포포 캠페인 가 포포 캠페인 가 포포 캠페인 가 포포 캠페인 가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사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여성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갖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태

 **이기태** kctu.news@gmail.com